

양산보 <애일가>의 전승과 성격

김신중*

〈차 례〉

1. 머리말
2. <애일가>의 전승 양상
3. <애일가>의 작품 성격
4. 맺음말

<국문초록>

양산보의 <애일가>는 부모의 생일에 자제들이 장수를 기원하는 뜻으로 불렀다는 축수가이다. 현재 그 원사는 전해오지 않으며, 양진태의 한역만이 남아 있다. 이 한역의 검토를 통해 <애일가>의 원래 모습을 연구한 것이 바로 이 글이다.

논의한 주요 내용은 크게 다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관련 자료의 세밀한 검토를 통해 <애일가>의 전승 양상을 살핀 것이 그 하나이다. 그리고 <애일가>의 귀속 갈래를 추정하고, 작품의 원사를 재구하여, 문학적 성격을 살핀 것이 나머지 하나이다.

논의의 결과 <애일가>는 지금까지 가사로 알려졌으나, 사실은 시조 작품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작품 원사의 재구를 통해 <애일가>가 당시 상당한 전파력을 가진 노래였음도 알 수 있었다.

핵심어 : 양산보, 양진태, 애일가, 가사, 시조, 한역, 원사, 축수가

* 전남대학교

1. 머리말

조선 중기인 16세기에 담양 사람 梁山甫가 지었다는 <愛日歌>는 현재 그 사설이 전하지 않는 노래이다. 그런 까닭에 이 작품이 무슨 내용을 어떤 형태로 노래하였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대체로 이것이 우리말로 된 가사 작품일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¹⁾ 필자 역시 마찬가지로 별다른 의심 없이 이 노래를 실전 가사의 한 작품으로 분류하고 취급하였다.²⁾ 물론 관련 자료의 정밀한 추적이나 검토를 거치지 않은 다분히 인상적인 판단에 따른 결과였다.

하지만 최근에 양산보가 조영한 瀟灑園에 대한 자료를 읽어가다가 그동안 간과하였던 <애일가>의 漢譯을 다시 접하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이 노래가 원래 가사가 아닌 시조였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이것이 곧 이 글을 쓰게 된 동기이다. 따라서 이 글은 먼저 <애일가>에 대한 관련 자료의 세밀한 검토를 통해 그 전승 양상을 점검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그 귀속 갈래를 추정하고 작품 원사를 재구하여 문학적 성격을 살피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아울러 이러한 고찰을 통해 <애일가>를 가사 작품으로 보았던 필자의 종래 견해를 수정하고자 한다.

2. <애일가>의 전승 양상

양산보(1503~1557)는 15세 때인 중종 12년(1517)에 상경하여 趙光祖의 문하에 들었다가, 2년 뒤인 기묘년의 현량과 방목에 일당 그 이름을

1) 박준규·최한선, 『담양의 가사문학』(담양군, 2001), 13쪽.

박준규, 『호남시단의 연구』(전남대학교출판부, 2007), 247쪽.

권수용, 「소쇄원의 역사와 인문활동 연구」(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23~24쪽.

2) 김신중, 「남도 고시가 약사」, 『은둔의 노래 실존의 미학』(다지리, 2001), 201·203쪽.

올린다. 하지만 급제자 수가 너무 많다는 논의에 밀려 최종 명단에는 빠지게 된다. 그리고 곧 이어 발생한 사화로 인해 낙향하고 만다. 이후 55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향리인 옛 창평의 蒼巖村³⁾에서 처사로서의 삶을 살았다. 따라서 어린 시절 이후 그의 생애는 짧은 유학 생활에 이은 향촌 생활로 정리된다. 또 향촌 생활에서 남긴 가장 두드러진 업적으로는 손수 소쇄원을 조영하며 당시 사람들에게 활발한 담론의 장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조선 중기 신진 사림의 일원으로서의 이런 면모 외에 양산보는 또한 부모에 대한 효성이 매우 지극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스스로 <孝賦>와 <애일가>를 짓고, 소쇄원에 ‘愛陽壇’을 쌓은 것이 바로 그러한 점을 말해준다. ‘애일’이라는 말이 효자가 아버이를 오래도록 모시고자 하는 마음에서 하늘의 해가 지나가는 것을 애석히 여긴다는 뜻이니, <애일가> 역시 <효부>와 마찬가지로 효를 주제로 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애일가>에 대한 관련 자료를 시간의 흐름을 좇아 살펴보기로 한다. <애일가> 관련 기록으로는 숙종 4년(1678) 李敏敎가 쓴 행장과 숙종 10년(1684) 宋時烈이 쓴 행장 및 『瀟灑園事實』의 실기, 그리고 양산보의 고손 梁晋泰의 한시와 한역이 있다. 먼저 이민서가 쓴 <瀟灑園梁公行狀>의 일부이다.

아버이를 섬김에 지성이 있어, 부모님의 옆에 있으면서 즐겁고 온화한 빛으로 아버이의 뜻을 따르지 않음이 없었다. 일찍이 이르기를 “사람의 도리에 효보다 더 큰 것이 없다”고 하였으며, 사람의 자식으로 그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모르는 자를 위하여 <효부> 수백 언을 지어, 본원을 드러내 밝히고 옛 교훈을 나열하였으니, 그것을 읽으면 죽히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있었다. 상국 송순은 선생의 내형이다. 그것을 보고 이르기를, “효의 도리를 깊이 알고 몸소 행하며 두텁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 능히 지을 수가 없다”라고 하였다. 하서 김선생 역시 송공의 말에 그렇다 하고, 그것을 차운하였다.⁴⁾

3) 지금의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지석마을이다. 蒼巖은 支石洞에 처음으로 이거한 양산보의 아버지 梁泗源의 호이자, 지석동의 다른 이름이다.

4) 事親有至性 在父母之側 未嘗不愉容和色 順適親意 嘗謂人道莫大於孝 而爲人子者不

양산보의 지극한 효성과 더불어 <효부>에 대해 말하고 있다. <효부>는 전체 1,337자로 이루어진, 200구가 넘는 장편의 한문 부 작품이다. 이 <효부>의 제작 동기 및 내용, 그리고 양산보와 특별히 가까운 사이였던 宋純(1493~1582)과 金麟厚(1510~1560)가 이 작품에 대해 평어를 남기고 차운한 사실까지를 차례로 언급하였다.⁵⁾ 그러나 아직 <애일가>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이민서가 행장을 쓴 6년 뒤 이번에는 송시열에 의해 다시 양산보의 행장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비로소 <애일가>의 존재가 거론되어 있다.

일찍이 효덕의 뜻을 실어 부 한 편을 지었다. 하서가 감탄하여 이르기를 “말마다 통절하고 이치가 곡진하다”고 하였다. 그 만시에 이른바 “강년에 성정의 근원을 밝혔다”는 것이 이것이다. 나중에 이어 지은 한 편이 있어, 함께 세상에 행해진다. 세상 사람들이 이로 인해 두 현인이 효에 깊음을 알았다. 공은 매양 부모님의 경절에 장수를 기원하는 술잔을 올리며, 歌辭를 지어 부르면서 그것을 권하였다. 대개 역시 효자가 애일을 하는 뜻이다.⁶⁾

양산보가 <효부>를 짓자 하서가 이에 감탄하여 양산보의 죽음을 애도하는 만시에서 이를 칭송하고, 또 차운한 작품을 지은 사실을 말하였다. 그리고 이어 효자가 애일을 하는 뜻을 담아 ‘가사’를 지었다고 하였다. 매양 부모님의 생신과 같은 경사스러운 날이면 그것을 노래 부르며 장수를 기원하는 술잔을 권해 드렸다는 것이다. 작품 제목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가사가 바로 <애일가>임을 알 수 있다. 보는 이에 따라서는 혹 <애일가>와 <효부>가 같은 작품의 다른 이름이 아닐까 여기기도 하나, 분명히 서로 다른 작품임도 알 수 있다.

能其所當爲 作孝賦數百言 闡發本源 臚列古訓 讀之有足感動人者 宋相國純 先生內兄也 見之曰 非深知孝理而躬行篤好者 不能爲也 河西金先生亦 以宋公言爲然 因次其韻 (李敏鉞, <瀟灑園梁公行狀>, 『瀟灑園事實』, 卷之三.)

5) 송순과 양산보는 내외종 간이며, 김인후와 양산보는 친사돈 간이다.

6) 嘗推演孝德之義 爲賦一篇 河西嘆曰 言言痛切 曲盡理致 其挽詩所謂 強年闡性源者 此也 後有所賡一篇 並行於世 世人因以知 二賢之深於孝也 公每於父母慶節 稱觴上壽 而作歌辭以侑之 蓋亦孝子愛日之意也 (宋時烈, <行狀>, 『瀟灑園事實』, 卷之三.)

소쇄원 주인들의 자취를 모은 『소쇄원사실』 권2에 실린 처사공 양산보 ‘實記’의 다음 기록은 이를 보다 상세히 말해 준다.

선생이 <애일가>를 지었다. 매양 부모님의 경절에 장수를 기원하는 술잔을 올리며, 자제들로 하여금 모여서 부르게 하여 기쁘게 하였다. 향리에서는 이를 아름답이 칭하여 효자곡이라 불렀다고 한다.⁷⁾

<애일가>라는 작품 이름과 더불어 <효자곡>이라는 그것의 다른 이름까지 소개되어 있다. 또 이 노래를 자제들로 하여금 모여서 부르게 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애일가>가 곧 우리말 노래임을 짐작케 한다. 그런데 『소쇄원사실』 권2의 ‘실기’ 항목에는 “삼가 실적을 취하여 행장에 들어있지 않은 것은 기록에 넣는다”라는⁸⁾ 세주가 붙어 있다. 이는 곧 이 ‘실기’가 행장 등의 자료를 모아 『소쇄원사실』을 편찬할 때, 여기에 빠진 사실들을 편찬자가 취하여 한데 수록한 것임을 말해 준다. 따라서 위의 기록은 당시 『소쇄원사실』 편찬자가 기존의 행장들이 <애일가>를 아예 무시하거나 소략하게 취급한 것을 보고, 이를 아깝게 여겨 보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보충한 편찬자는 과연 누구일까? 『소쇄원사실』의 편찬을 위한 원고의 수집 및 청탁은 양산보의 고손인 忍齋 양진태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어 그 아들 梁采之에 의해 편찬이 잡히고, 손자 梁學謙 대에 와서야 비로소 출간되었다고 한다.⁹⁾ 여기서 주목되는 인물이 바로 양진태(1649~1714)이다. 그의 활동기에 이민서(1633~1688)와 송시열(1607~1689)의 행장이 지어졌기 때문이다. 송시열의 문인이었던 이민서는 당시 광주 목사로 와 있었고, 양진태 역시 송시열의 문인이었는

7) 先生作愛日歌 每於父母慶節 稱觴上壽 令子弟屬而和之 以致愉樂 鄉里稱艷之 爲孝子 曲云 (『瀟灑園事實』, 卷之二, 實記.)

8) 謹取實蹟 未入於行狀者 入錄 (『瀟灑園事實』, 卷之二, 實記.)

9) 右瀟灑園事實三冊 王考忍齋公哀輯之 先君子編次之 以傳於家者也 (中略) 王考自少 搜集行錄於先賢文集 參以家傳遺蹟 請得誌銘狀碣 于李西河宋尤菴朴玄石諸先生 先君子繼其未遑 以爲編次 未及刊出矣 (梁學謙, <跋>, 『瀟灑園事實』.)

테¹⁰), 아마도 그런 인연들이 이들로 하여금 양산보의 행장을 쓰게 하였을 것이다. 앞서 이루어진 이민서의 행장에는 보이지 않던 <애일가> 관련 사실이 송시열의 행장에 추가된 사실 역시 양진태의 부탁에 의한 결과였을 것이다. 또 <애일가>에 대한 양진태의 관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으니, 당시까지 전해온 노랫말로 칠언절구의 한시를 짓고 별도의 한역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이 양진태가 『소쇄원사실』의 ‘실기’에 위 기록을 넣었으리라 생각되는 단서이다.

다음이 <애일가>를 작시하고 한역한 양진태의 <謹翻瀟灑高祖愛日歌辭 警示一家人>이다. ‘소쇄 고조의 애일가사를 삼가 번역하여 한 집안 사람에게 경계삼아 보였다’는 다소 긴 제목 아래, 칠언절구에 이어 “其歌曰”로 시작되는 세주 형태로 다시 노랫말이 한역되어 있다. 노래의 제목을 ‘애일가사’라 한 것도 눈길을 끈다.

日裏慈烏聽我說	해 속의 까마귀야 내 말을 들어라
爾禽曾是鳥中參	너는 짐승이나 새 중의 으뜸이랴
我有高堂雙鶴髮	내게 고당의 학발 쌍친 계시니
願將朝彩照天心	아침빛으로 하늘 가운데 비추어다오

그 노래에 이르기를, “해 속의 까마귀야 가지 말고 내 말 들어라. 네 비록 그러하나 새 중의 으뜸이랴. 북당에 학발 계시니 중천에 오래 있어다오”라고 운운하였다.¹¹⁾

‘金烏’ 또는 ‘三足烏’라는 말이나 ‘陽鳥說話’에서 보듯이 까마귀는 태양 속에 산다는 새로, 곧 태양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 새끼가 자라면 먹이를 물어와 늙은 어미를 먹인다는 反哺의 효조로 알려져 있어, 공자의 제자이면서 효행으로 유명한 증삼에 비유할 만하다. 이러한 까마귀의 상징에다

10) 김덕진, 『소쇄원 사람들』(다홍미디어, 2007), 320쪽.

11) 其歌曰 日中烏兮 勿去而聆我語 爾即雖然 而鳥中之曾參也 鶴髮在北堂 長在中天云云 (梁晋泰, <謹翻瀟灑高祖愛日歌辭警示一家人>, 『瀟灑園事實』, 卷之十三, 諸賢題詠唱酬.)

학발의 부모를 위해 가는 해라도 붙잡아두고 싶다는 애일의 심정을 결부시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위의 한시이다. 또 이어진 한역을 통해서도 <애일가>가 양오·반포·애일을 중심 모티프로 삼은 노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이 <애일가>의 내용을 역시 양산보가 지은 장편 <효부>와 비교해 보면, <효부>에는 양오와 애일의 모티프가 사용되지 않았으며, 다만 작품 말미에 반포의 모티프만이 보이고 있다. 즉 “숲 속 까마귀의 반포를 보고, 다시 부끄러워하며 삼가노라(相林鳥之反哺 更懷羞而兢兢)”가 그것이다.¹²⁾ 작품 속에 실현된 의미도 <애일가>와는 다르다. 따라서 <애일가>와 <효부>가 전혀 다른 작품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복당에 학발이 계신다’는 표현으로 보아, 노래의 제작 시기는 물론 작자의 부모가 생존해 있을 때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대체 언제였는지는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 양산보의 아버지 梁泗源과 어머니 新平宋氏가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 역시 알 수 없기 때문이다.¹³⁾ 다만 김인후가 <瀟灑園主人輓>에서 “강년에 효를 읊조려 성정의 근원을 밝혔다(賦孝強年闡性源)”고 한 것으로 보아,¹⁴⁾ <효부>가 이루어진 40세 무렵에 함께 지은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애일가> 관련 자료를 통해 그 전승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애일가> 관련 자료들이 모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양진태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따라서 그 전승의 중심에 양진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양진태와 양산보 사이에는 대략 150년 가량의 시차가 놓여 있다. 따라서 실제로 양산보가 <애일가>를 지었는가에 대해 일말의 의구심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양진태에 앞서 살았던 金大器가 소쇄원 주인의 회갑 잔치를 보고 쓴 한시가 남아 있어, <애일가>와 같은 노래가 양진태 훨씬 이전부터 이미 존재했음을 짐작케 한다.

12) 梁山甫, <孝賦>, 『瀟灑園事實』, 卷之二.

13) 考宣務郎行宗簿寺主簿諱泗源(中略)生卒之歲不傳 夫人新平宋氏(中略)生卒之歲不傳(『瀟灑園事實』, 卷之一, 世系.)

14) 金麟厚, <瀟灑園主人輓>, 『瀟灑園事實』, 卷之三, 輓章.

김대기(1557~1631)는 양산보가 세상을 떠난 바로 그 해에 출생한 인물이다. 양산보의 아들인 梁子淳에게서 배웠으며, 또 자신의 딸을 양자정의 아들 梁千柱와 결혼시켰으니, 소쇄원의 양씨 집안과는 각별한 인연이 있었다. 다음이 그가 ‘소쇄원 주인의 수연에서 그 형제가 때때옷을 입고 춤추며 함께 노래하는 것을 보고 느껴 써 주었다’는 <瀟灑主人壽宴見其兄弟綵舞雙歌感而題贈>이다.

萬松之下脩篁裏	솔밭 아래 기다란 대숲 속에
水石環圍孝子居	수석 둘러치고 효자가 산다네
棣杜花間歌且舞	체두화 사이에서 노래하고 춤추니
白衣孤客淚沾裾	백의의 나그네 눈물 옷깃 적시네 ¹⁵⁾

작품의 제목이나 내용이 앞에서 본 ‘실기’의 내용을 연상시킨다. 이 수연에서 형제가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바로 <애일가>였을 것이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애일가>가 양산보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3. <애일가>의 작품 성격

<애일가>는 고시가의 어떤 갈래에 속한 노래인가? 단가형의 시조인가, 아니면 장가형의 가사인가? 이러한 의문에 대해 이미 머리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애일가>에 관심을 가진 논의들은 대체로 가사로 보는 데 별다른 이의가 없는 듯하다. 그것은 아마 이 작품의 사실이 현재 전하지 않는 데다, 기존의 관련 자료들에서 이를 가사라고 지칭하였기 때문이다. 즉 송시열이 쓴 행장에서 효자가 애일을 하는 뜻을 담은 ‘가사’라고 한 것이나, 양진태의 시제에서 소쇄 고조의 ‘애일가사’라고 한 것이 그

15) 金大器, <瀟灑主人壽宴見其兄弟綵舞雙歌感而題贈>, 『晚德集』, 卷之一, 詩.

것이다.

그런데 종래 가사라는 말은 오늘날의 문학적 갈래 개념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말로 된 노래나 노랫말이라는 뜻으로 폭넓게 사용되었다. 정철의 시조와 가사를 모은 가집이 『松江歌辭』라는 이름으로 엮여지거나, 『孤山遺稿』가 윤선도의 시조를 ‘歌辭’라는 표제 아래 수록하고 있는 것 등이 그러한 예이다. 따라서 과거에 쓰인 가사라는 말을 그대로 오늘날의 갈래 개념으로 수용할 수는 없으며, <애일가>의 문학적 갈래는 그 노랫말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관련 기록의 검토를 통해 판단되어야 한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양진태의 한시 <근번소쇄고조애일가사경시일가인>과 여기에 세주 형태로 붙여진 한역된 노랫말이다. 이를 통해 불완전하나마 <애일가>의 원래 모습을 추정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 <애일가>의 원사를 살피기 위해 세주의 한역 내용만을 다시 한번 인용한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한역과 우리말 반역을 나란히 배치하였다.

其歌曰	그 노래에 이르기를,
日中鳥兮	“해 속의 까마귀야
勿去而聆我語	가지 말고 내 말 들어라
爾卽雖然	네 비록 그러하나
而鳥中之曾參也	새 중의 증삼이라
鶴髮在北堂	북당에 학발 계시니
長在中天	중천에 오래 있어다오”
云云	라고 운운하였다. ¹⁶⁾

위 인용문에 액자 형태로 들어있는 따옴표 안의 6구가 <애일가>이다. 여기서 이 6구만을 놓고 보면, 그것이 곧 단가 형태로 시조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 하지만 인용문 맨 뒤의 ‘云云’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또 달라진다.

이 운운이라는 말은 보통 두 가지의 용례로 쓰인다. 즉 남의 말이나 글

16) 앞의 주 11) 참고.

을 대상으로 그것을 인용한다거나, 또는 생략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운운을 단순한 인용의 뜻으로 본다면, 위의 6구가 곧 <애일가> 내용의 전부가 되며, 이 경우 <애일가>는 단가형의 시조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운운을 생략의 뜻으로 해석한다면, 위에 수록된 6구는 <애일가> 내용의 일부에 불과하게 되며, 이 경우 <애일가>는 장가형의 가사에 근접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위 인용문 자체만을 두고도 이를 단가형으로 볼 것인지, 또는 장가형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필자는 이 ‘운운’을 단순한 인용의 뜻으로 보고, <애일가>를 위 6구로 이루어진 단가형의 시조 작품으로 파악한다. 다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

첫째, 위에 한역된 6구가 내용과 형식면에서 한 편의 시조 작품으로서 완결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내용면에서는 양오·반포·애일의 중심 모티프를 차례로 활용하여 연로한 부모의 장수를 바라는 마음을 미진한 느낌 없이 표현하였다. 또 형식면에서 위의 6구가 곧 시조 3장6구의 6구에 대응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두 번째 이유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칠언절구 형태의 한시 한역 역시 시조의 3장 형식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 한역만으로 한 편의 완결된 시조 작품이 성립하며, 여기에 다른 어떤 내용이 생략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둘째, 한역된 형태가 조선시대 시조 한역의 일반적 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시조의 한역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는 기존 한시의 틀을 이용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기존 한시형에 얽매이지 않고 잡언체의 장단구 형식을 이용하는 것이다. 또 기존 한시의 틀을 이용하는 경우는 조선 후기의 소악부류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칠언절구 형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장단구 형식을 이용하는 경우는 시조의 3장6구 형식을 고려하여 6구체 구성을 취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애일가>의 한역은 이 두 가지 방식을 모두 그대로 따르고 있다. 양진태의 한시 <근번소쇄고조애일가사경시일가인>은 칠언절구 형태로, 또

그 세주에서는 장단의 6구체에 해당하는 모습으로 한역이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세주의 장단6구가 그대로 시조 3장6구의 6구에 대응한다고 하였을 때, 양진태 칠언절구의 기구와 승구는 그 초장과 중장에, 그리고 진구와 결구는 종장에 해당됨을 보게 된다. 그런데 이것 역시 시조를 칠언절구로 옮기는 한역의 매우 일반적 방식이었다.¹⁷⁾

한편 이렇듯 장단6구로 시조를 한역한 사례를 양산보와 가까웠던 송순과 김인후의 작품에서도 찾을 수 있다. 다음은 『倂仰集』 권4에 실린 송순의 <五倫歌> 제1수 ‘父子有親’의 한역과 『송강가사』 성주본에 실린 우리말 원사이다. <애일가>처럼 부모에 대한 효를 주제로 하였다.

阿爺兮生我	아마님 날 나흐시고
阿嬈兮育我	어마님 날 기르시니
苟非兩恩德兮	두 분곳 아니시면
而此身兮生嬈	이 몸이 사라질가
如天罔極恩德	하늘 ㄹ튼 ㄹ업슨 은덕을
于何可準兮爲報	어디 다허 갑스오리 ¹⁸⁾

송순의 시조는 모두 『면앙집』에 그 한역만 수록되어 있고, 일부 작품의 원사가 각종 가집에 흩어져 전한다. 이 작품의 원사 역시 『송강가사』에 <訓民歌>의 제1수 ‘父義母慈’로 수록되어 있어 작자 문제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그와는 별도로 이러한 시조의 한역이 <애일가> 전승 당시 소쇄원 주변에서도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장가보다는 단가인 시조에 보다 적합한 연행 환경을 가졌기 때문이다. <애일가>는 “매양 부모님의 경절에 장수를 기원하는 술잔을 올리며, 자제들로 하여금 모여서 부르게 하여 기쁘게 하였다”¹⁹⁾ 노래이다. 즉 어린 자제들이 특별한 날에 장수를 기원하는 권주가로 불렀다. 그런데

17) 김문기·김명순, 『조선조 시가 한역의 양상과 기법』(태학사, 2005), 63쪽 참고.

18) 김신중, 「宋純 時調의 전승 양상과 문학사적 의미」, 『고시가연구』 제4집(한국고시가문학회, 1997), 31쪽.

19) 앞의 주 7) 참고.

연행 주체가 어린 자제들이고 연행 목적이 축수를 위한 것이라면, 그 노래는 가사와 같은 장가보다는 단가가 보다 적합하였을 것이다.

여기서 <애일가>가 부모의 축수를 위한 연행 목적을 가졌다는 사실에 주목하면, 양산보와 거의 같은 때에 이웃 마을에 살았던 효자 金成遠(1525~1597)의 시조가 역시 비슷한 성격을 보인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²⁰⁾

 넬 구름이 심히 구저 붉근 달을 가리오니
 밤쫘의 혼자 안자 익들오미 그지업다
 브름이 이 뜬들 아라 비를 모라 오도다²¹⁾

‘북당에 술잔을 올릴 때 달이 흐릿한데다 또한 비까지 내려 노래를 지었다(獻酌北堂時 月微明 雨亦作 作歌)’는 제작 동기를 제목으로 삼은 작품이다. 바람이 몰아 온 비에 어서 빨리 구름이 걷히고 밝은 달이 제 모습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내용이다. 어머니의 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을 직설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비 온 뒤의 갠 달처럼 항상 밝고 건강한 모습을 간직하기 바라는 뜻을 담았다. 북당에 술잔을 올리면서 느낀 바로 지었다고 하였으니, 여기서도 역시 특별한 날을 위한 축수의 노래가 시조로 제작되었음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애일가>가 원래 시조였음을 추정하였다. 그렇다면 한역 이전의 우리말 원사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역 과정에서 원사의 변이나 첨삭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지금 알 수 없다. 하지만 그 원래 모습이 앞에서 본 장단6구 한역의 우리말 반역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시조의 율격을 고려하여 반역된 내용을 다시 다듬고, 그것만으로는 의미가 분명치 않은 일부 내용을 칠언절구 한역을

20) 김성원은 <星山別曲>의 무대 息影亭의 창건자일 뿐만 아니라, 효행으로서도 이름이 있었다. 정유재란 때 노모를 보호하다 同福의 母后山 아래 聖母村에서 함께 왜병에게 화를 당했다.

21) 金成遠, <獻酌北堂時月微明雨亦作作歌>, 『棲霞堂遺稿』, 下, 歌.

통해 보충한다면, 곧 그 원사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이 바로 그러한 과정을 거쳐 재구한 시조 <애일가>이다. 원사에서 한자어 사용을 얼마나 하였는지 알 수 없으므로, 될 수 있으면 우리말로 옮겼다.

해 속의 까마귀야 가지 말고 내 말 들어
네 비록 짐승이나 새 중의 증삼이라
북당에 학발 계시니 중천에 늘 있으렴

그런데 이렇게 재구된 <애일가>의 원사를 보면, 공교롭게도 그 모습이 그리 낯설지 않다. 이와 유사한 작품을 기존 시조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애일가>가 상당한 전파력을 가진 노래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①日中 金가마고 가지 말고 너 말 드러
너는 反哺鳥라 鳥中之 曾參이니
오늘은 날 위하야 長在中天 ㅎ얏고다²²⁾

②日中에 三足鳥 | 야 가디 마오 내 말 들어
너도 反哺鳥로 鳥中之 曾參이어니
北堂의 鶴髮雙親을 더디 늙게 ㅎ여라 (『松湖遺稿』)²³⁾

위의 ①은 盧禎(1518~1578)의 <母夫人壽宴歌>이다. 어머니의 회갑연으로 보이는 수연에서 부른 노래이다. 그리고 ②는 許樞(1520~1592) 또는 許珽(1621~?)의 작품으로 전한다. 각종 가집뿐만 아니라 허강의 『松湖遺稿』에도 실려 있어 허강의 작품인 듯한데, 허강과 허정 공히 ‘松湖’라는 호를 사용하여서 혼란스럽다.

①과 ② 모두 <애일가>와 마찬가지로 초장에서는 양오, 중장에서는 반

22) 盧禎, <母夫人壽宴歌>, 『玉溪先生續集』, 卷之一, 歌.

23) 심재완 편, 『교본 역대시조전서』(세종문화사, 1972), 2449번에서 재인용.

포, 종장에서는 애일의 모티프를 사용하였다. 일부 표현상의 차이만 있을 뿐 내용이 대체로 <애일가>와 일치한다. 특히 초장은 그 내용이 세 작품 모두 같으며, 중장은 <애일가>에서 ‘반포조’라는 말을 표면에 내세우지 않은 것이 다르다. 또 중장은 ②의 내구와 ①의 외구가 <애일가>와 같다. 따라서 이 셋은 결국 동일한 작품이라 하겠으며, 어느 한 원작이 전파되어 향유되는 과정에서 개작된 모습이 나머지 두 작품에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원작에 해당하는 작품은 어떤 것일까? 이 세 작품의 제작 시기를 분명히 알 수가 없어 현재 그 전파 경로를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다. 만일 노진의 작품이 어머니 권씨부인(1490~1575)²⁴⁾의 회갑연에서 노래된 것이라면, 그 제작 시기는 명종 5년(1550)이다. 양산보가 세상을 뜨기 7년 전이다. 또한 노진은 일찍부터 김인후와 교유가 있었으며, 양산보의 사후인 명종 16년(1561)부터 약 2년간 담양 부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따라서 어느 한쪽으로는 전파를 단정하여 말하기는 곤란하다.

그렇지만 단순히 생존 시기만을 놓고 따지면 양산보가 다른 사람들보다 15년 이상 빠르다. 또 앞 장에서 <애일가>의 전승 양상을 검토하며 김인후의 만시를 근거로 그 제작 시기를 양산보의 40세(1542) 무렵으로 추정할 바 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 일단 <애일가>가 선행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하지만 여기서 이에 대한 더 이상의 추적과 판단은 유보하기로 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애일가>는 부모의 생일과 같은 경절에 자제들이 부른 축수의 노래이다. 노진과 허강의 작품 역시 마찬가지로이다. 그런데 이러한 축수가를 이미 이상원이 ‘생일노래’라 하여 그 성격과 전승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²⁵⁾ 이에 따르면 생일노래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으니, ‘자손

24) 考諱時敏 成均生員(中略) 以弘治庚戌十月癸丑 生夫人(中略) 越一日而終 卽萬曆三年十月丙戌也 享年八十六(盧禎, <先妣貞夫人權氏行狀>, 『玉溪先生文集』, 卷之三, 行狀)

25) 이상원, 「조선시대 생일노래의 성격과 전승 연구」, 『조선시대 시가사의 구도와 시각』(보고사, 2004), 79~101쪽.

들이나 손님들이 주인공의 만수무강을 비는 노래'와 '이에 대한 주인공의 화답가'로 이루어진다. 또 전자에 속하는 문헌상 가장 오래된 작품으로 노진과 허강의 작품을, 후자에 속하는 그것으로는 李賢輔의 <生日歌>를 거론하였다. 이러한 고찰에 비추어 축수가인 <애일가>는 물론 전자에 속한다. 그리고 이 글에서 논의해 온 바가 설득력을 갖는다면 그 앞머리에 놓인다. 따라서 <애일가>에서 시조문학상 조선시대 생일노래의 하나인 축수가 제작과 연행의 선행 사례를 볼 수 있다.

4. 맺음말

이 글은 그동안 가사 작품으로 알려진, 양산보 <애일가>의 원래 모습을 탐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각종 관련 자료를 통해 그 전승 양상을 점검하고, 귀속 갈래와 원사를 추정하여 문학적 성격을 살피는 데 논의의 중점을 두었다. 지금까지 살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애일가>는 부모의 경절에 자제들이 장수를 기원하는 술잔을 올리며 불렀다는, 생일노래의 일종인 축수가이다. 하지만 그 원사는 지금 전해지지 않으며, 현전하는 관련 기록들은 대부분 양산보의 고손 대에 와서야 비로소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주목되는 것이 고손 양진태의 역할이다. 특히 그가 <애일가>를 칠언절구와 장단6구로 한역하여 가장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한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애일가>는 원래 가사가 아니라 시조 작품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작품 원사를 재구하였는데, <애일가>는 초·중·종장에 양요·반포·애일의 중심 모티프를 배치하여 이루어진 작품이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진 작품이 기존 시조에서도 발견되며, 이를 통해 <애일가>가 당시 상당한 전파력을 가진 노래였음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전파 경로에 대한 세밀한 추적과 판단은 이 글의 논의 밖에 남겨 두었다.

참고문헌

『晩德集』.

『棲霞堂遺稿』.

『瀟灑園事實』.

『瀟灑園詩選』, 소쇄원시선편찬위원회, 1995.

『玉溪集』.

심재완 편, 『교본 역대시조전서』, 세종문화사, 1972.

권수용, 「소쇄원의 역사와 인문활동 연구」,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8, 23~24쪽.

김덕진, 『소쇄원 사람들』, 다홍미디어, 2007, 320쪽.

김문기·김명순, 『조선조 시가 한역의 양상과 기법』, 태학사, 2005, 63쪽.

김신중, 「송순 시조의 전승 양상과 문학사적 의미」, 『고시가연구』 제4집, 한국고시가문학회, 1997, 31쪽.

_____, 『은둔의 노래 실존의 미학』, 다지리, 2001, 201·203쪽.

_____, 『호남의 시조문학』, 심미안, 2006.

박준규·최한선, 『담양의 가사문학』, 담양군, 2001, 13쪽.

박준규, 『호남시단의 연구』, 전남대학교출판부, 2007, 247쪽.

이상원, 『조선시대 시가사의 구도와 시각』, 보고사, 2004, 79~101쪽.

투고일 : 2009년 12월 8일, 심사 : 2010년 1월 11일~25일, 게재확정 : 2010년 2월 1일

<Abstract>

Tradition and character of Aeil-ga
written by Yang, San-bo

Kim, Shin-chung

Aeil-ga written by Yang, San-bo is the song of offspring to pray their parents' long life on parents' birthday. The original words of a song named Aeil-ga hasn't been transmitted and only the translation into Chinese by Yang, Jin-tae has left. This article is written to study on the original state of Aeil-ga by examining the translation.

The principle contents of this are made of two parts. First, this article searches the aspect of its tradition by examining the translation in detail. Second, this article analyzes literary character of Aeil-ga by presuming its Genre and reconstructing of the original words of the song.

As the result of the study, Aeil-ga has been known for Ga-sa but now it is confirmed that Aeil-ga is Si-jo. Moreover, through reconstructing of the original words of the song, Aeil-ga was a song for longevity(Chuksu-ga) which spreaded powerfully at that time.

Key words : Yang San-bo, Yang Jin-tae, Aeil-ga, Ga-sa, Si-jo, translation into Chinese, original words, song for longevity(Chuksu-ga)